Aēsop®

안녕하세요, Future Fables by Aesop입니다. Aesop의 Future Fables는 Literary Hub와 함께하는 어른을 위한 우화 시리즈로 삶의 교훈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멜리아 아브라함의 <쥐와 햄스터>인데요. 이 글에서는 조금 야심찬 두 마리의 설치류가 등장합니다. 페미니스트 이슈 및 퀴어의 대표성에 대한 글을 쓴 아멜리아 아브라함은 이 작고 귀여운 친구들의 삶을 우화로 보여줍니다. 아멜리아 아브라함의 모든 글은 개성 있고 새로운 울림을 전하죠.

오늘의 우화를 들어보세요...

쥐와 햄스터가 술집에 들어갔다. 그들은 술을 주문했다.

“농담 아니야.” 쥐가 햄스터에게 말했다.

“알아, 듣고 있어.” 지루해서 눈을 굴리는 것을 쥐가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햄스터는 재촉했다.

“넌 내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쥐가 계속했다. 그녀는 운이 지지리도 없었다. 오늘 그녀를 우울하게 만든 이유를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어쩌면 월경 주기 때문일 수 있고—모두가 그녀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나 말고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해 봤어? 전문가?” 햄스터가 말했다.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쥐가 말했다. 햄스터는 언제나 누구라도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다. 쥐는 햄스터가 수수료라도 받는 게 아닐까 궁금했다.

“음, 일 년 중 좋지 않은 시기지.” 햄스터가 허공을 응시하면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한 해 중에서 나쁜 시기였다. 비가 술집의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하수가 넘쳐나고 있었다. 곧 있으면 얼음이 얼고, 그러면 먹이가 부족해질 것이다.

햄스터에게는 이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을 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햄스터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주인들이 휴가를 곧 떠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외로울까 봐 걱정이었다. 쥐는 비웃으며 한 잔 더 시켰다. 술이 나오기까지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집을 구하는 건 어때?” 햄스터가 말했다.

“운이 없었어.” 쥐가 말했다. “지난 달에는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고 젖을 물려야 했고—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길—이제 다시 일하러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녀는 맨 위에 얇게 먼지가 앉은 메를로 와인을 홀짝였다. 쥐는 능력주의를 신봉했고, 정말 그랬지만 그녀가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을 막는 무언가가 자신에게—내재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햄스터와 함께는 더더욱 아니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햄스터가 말했다.

“계속 해봐.” 쥐가 마지못해 말했다.

“와서 나랑 같이 지내지 않을래?” 햄스터가 분명히 했다. “팀이랑 크리스가 없는 동안만.”

쥐는 햄스터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속셈인지 살폈다. 쥐는 절망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의심이 많은 타입이었다. 햄스터가 이번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휴일이어서

들떴나? 내일이면 자신이 베푼 아량을 후회하지 않을까? 햄스터의 구세주 콤플렉스가 다시 작동한 걸까? 그게 중요해?

"너, 정말이야?" 쥐가 말했다.

"그냥 연휴일 뿐이야." 햄스터가 말했다. "싫으면 말고."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날 밤, 쳇바퀴에서 햄스터의 머리도 돌았다. 쥐들이 와서 머물도록 한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기를 다 먹어 치우면 어쩌지? 번식을 시작하면 어쩌지? 하지만 최악으로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리면 어쩌지?

햄스터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걱정했다.

목요일에 팀과 크리스가 크루즈 여행을 떠난 후, 햄스터는 간간히 낮잠을 자며 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한편, 쥐는 너무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팀과 크리스의 집에 와 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미루어 햄스터의 생활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멀리서 그런 생활을 이상화했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남과 비교하면 절망에 빠지기 쉽단다." 쥐의 엄마는 잠들기 전에 쥐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항상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10명의 자식을 키우고 그들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쥐는 비교를 멈출 수 없었다. 어떤 점에서는 비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항상 더 좋은 곳, 더 많은 음식, 더 따뜻하고 축축한 생활방식을 찾도록 만든 그녀의 원동력이었다.

햄스터는 물론 친구지만 약간의 건강한 경쟁이라면 친구와 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인가?

쥐는 햄스터의 뒷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은 다투고 갉아먹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졌다. 쥐가 아이들에게 돌아섰다.

"쉿, 조용히 하렴." 그녀가 쉿 하는 소리를 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엄마가 뭐라고 했지?"

여전히 문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당황한 쥐는 옆문으로 가족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스스로 집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기다리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쥐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부엌에 남겨 두었다.

그녀는 재빨리 체계적으로 아래층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햄스터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이끌고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에서 소음이 들려왔고 아래층의 아이들이 물건을 부숴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복도 안쪽에 닫힌 문에서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 방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다. 집 안에는 고양이 냄새는 없었지만 그녀는 전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쥐가 복도 끝에 있는 문에 다다라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넓은 리놀륨 바닥을 가로질러 분홍색 케이지가 욕조 옆에 엄중하게 놓여 있었다. 햄스터는 얼어붙은 듯이 케이지 안에서 밖을 응시했다.

"나는—" 햄스터는 말을 뱉기 시작했지만 더듬거렸다. 그녀는 작은 케이지의 철창 사이로 유감스러운 듯 밖을 바라봤고 그녀 옆으로 한 구석에서는 작은 먹이 더미가 이미 썩고 있었다.

“나는—나는 오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하지만 뭐라고?” 쥐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 햄스터는 이제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햄스터와 쥐는 서로의 눈을 응시했고 시간에 갇힌 채 상대방의 존재를 생각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커다란 충돌이 있기 전까지 그 순간은 계속되었다. 마치 무언가 떨어졌거나 부서진 것 같았다.

“가봐야겠어.” 쥐가 친절함이 가득한, 이제 자기 연민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아이들을 불러모아 밤 거리로 데리고 나섰다.

햄스터에게 치료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우화는 “남의 떡이 꼭 큰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쥐의 엄마가 말했듯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Future Fables by Aesop은 Literary Hub가 함께합니다. 주제곡 작곡은 딘 블런트, 팟캐스트 믹싱, 디자인, 마스터링은 Unit의 한나 웹스터였습니다.